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☐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☐ 1월 31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*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0건과 3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.

* (검사 전수 상위 5개 품목) 피조개 5건, 굴 4건, 불볼락 4건, 오징어 2건, 임연수어 2건 등

☐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
○ 1월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☐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
○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과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
-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6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1월 31일 기준,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진하·일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1월 2주~3주(1.8~1.19)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

□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, 서남해역 4개 지점,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.
- 세슘 134는 리터당 0.071 베크렐 미만에서 0.081 베크렐 미만이고, 세슘 137은 리터당 0.065 베크렐 미만에서 0.082 베크렐 미만이며, 삼중수소는 리터당 6.8 베크렐 미만에서 7.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.

* (^{134}Cs) <0.071~<0.081Bq/L, (^{137}Cs) <0.065~<0.082Bq/L, (^3H) <6.8~<7.0Bq/L

-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,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'안전'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

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IAEA 활동 및 데이터

- 브리퍼 :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.

< 2. IAEA 확증모니터링 및 TF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관련 >

□ IAEA는 오스트리아 현지 기준, 1월 30일에 오염수 및 해양환경에 대한 확증모니터링 보고서와, 오염수 방류 이후 IAEA 모니터링 TF의 첫 방일(訪日) 미션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.

① 오염수 및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 보고서

□ 먼저, 오염수와 해양환경에 대한 확증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

□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, 일반 국민들에게는 ‘확증모니터링’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,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

○ IAEA 확증모니터링은 도쿄전력과 같은 일본 측 분석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핵종 분석 능력이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며,

- IAEA 실험실을 포함한 복수의 분석기관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한 후, 결과를 상호비교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이번에 IAEA가 공개한 오염수 확증모니터링 보고서는,
 - 오염수 저장탱크인 G4S-B10 탱크와 G4S-C8 탱크에서 '22년 10월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에 대해 IAEA, 도쿄전력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.
 - 3개 기관의 분석 결과는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고, IAEA는 이를 바탕으로, 도쿄전력의 측정 정확도와 기술적 역량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.
- 다음으로,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도 기본적으로 일본 측 분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작업이지만,
 - 이번 확증모니터링은 방류 전인 '22년 11월에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여, 방류 이전 해양환경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.
 - 해양환경 시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·어류·퇴적물·해조류 등으로 구성되었고, 분석에는 IAEA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일본의 6개 분석기관이 참여했습니다.
 - IAEA는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에서도 일본 분석기관의 분석값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며, 이 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분석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.

② 방류 이후 첫 IAEA 방일 미션 보고서

□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수단에는
방금 설명해 드린 확증모니터링 외에도 IAEA 모니터링
TF 활동이 있습니다.

○ IAEA 모니터링 TF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
부합하게 계획·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'21년 7월에
출범했으며,

○ IAEA와 11개국* 전문가가 참여해 도쿄전력 방류계획의
안전성,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적절성 등을
점검해왔습니다.

* 아르헨티나, 호주, 캐나다, 중국, 프랑스, 한국, 러시아, 미국, 영국, 베트남, 마셜제도

□ 이번 보고서는 IAEA 모니터링 TF가 작년 10월, 즉 방류
이후 처음 소집되어, 일본에서 원전 시설 시찰, 도쿄전력 및
원자력규제위원회 면담 등을 진행한 내용을 담았습니다.

○ TF는 방류 안전성 감시를 위한 국제기반이 잘 마련
되어 있고, 방류설비도 실행계획과 안전기준에 부합
하게 설치·운영되는 등,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
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,

○ 작년 7월 4일에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결론을
재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
○ IAEA는 모니터링 TF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며,
다음 방일미션은 올봄에 수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.

< 3.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>

☐ 다음으로, 도쿄전력이 어제(1.30)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☐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1월 29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,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(ℓ)당 700벵크렐(Bq) 미만*으로 기록되었습니다.

*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: <5.9~<8.2(검출하한치 미만)

☐ 이상입니다.